

KIA, 용병 영입 마지막 빈 칸 채웠다

일본서 요미우리 등 활약 65승 테니스 홀튼 영입

커브·체인지 제구력 호평...올 시즌 기대감 상승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수로 빈틈을 채웠다.

KIA가 2일 일본 퍼시픽 리그 다승왕 출신의 테니스 홀튼(Dennis Sean Houlton·우투 우타·35·사진)과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25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홀튼은 193cm·107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서 6시즌을 보냈다. 최근에는 소프트뱅크 호크스

와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 일본에서 6년간 활약했다.

특히 일본에서의 경력이 홀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지난해 요미우리 선발로 18경기에 출전한 홀튼은 103.3닝을 소화해 9승4패 평균자책점 3.73, 32볼넷 67탈삼진을 기록했다. 일본리그 6시즌의 기록은 64승 39패 6세이브, 평균자책점은 3.11이다. 2011시즌에는 19승을 수확하면서 퍼시픽

리그 다승왕에 오르기도 했다.

140km대 중반의 직구와 함께 커브·체인지업을 구사하며 볼 끝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화구 제구도 뛰어나다.

KIA는 하이로 어센시오, 브렛 필에 이어 테니스 홀튼과 계약을 끝내면서 외국인 선수 영입 작업을 마무리 했다. 앞서 마무리와 중심타자를 영입한 데 이어 마지막 카드를 선발 투수에 사용하면서 빈틈을 꼼꼼하게 채웠다. 가장 먼저 어센시오를 낙점하며 마무리 고민을 풀었다. KIA는 지난 시즌 앤서니를 마무리로 번신시키며 마운드 퍼즐을 완성하려 했지만 앤서니의 경험부족과 벤치의 성급한 운영 탓에 일찍 한계가 왔다. 이번에도 내부에서 답을 찾지 못한

KIA는 볼펜 경험이 풍부한 선수를 영입해 일찍 마운드의 큰 틀을 짰다.

타선에서도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브렛 필을 선택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KIA는 지난 시즌 초반 최희섭의 질주와 함께 쉬어갈 곳 없는 중심 타선을 구축했지만 부상 도미노 속에 나지안 홀로 분투하면서 쉬운 팀으로 전락했다. 브렛 필의 투입으로 뻥뻥하게 중심 타선을 짜게 된 것은 물론 경쟁 효과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김주찬으로 초반 분위기를 뒀던 KIA는 이번에는 김주형·최희섭을 중심으로 한 1루 싸움을 기대하고 있다.

홀튼은 선발진에 힘을 실어준다. KIA는 현재 6선발까지 가능했던 선발진을 보유했

지만 지난해에는 선발 꾸러기가 만만치 않았다. 올 시즌에는 윤석민의 공백까지 감안해야 한다. 선발 자리를 쥔 해놓은 선수가 김진우·양현종·송은범 3명에 그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선발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중도 교체 등으로 시간을 허비했던 KIA는 미국과 일본 무대를 두루 경험한 홀튼으로 실패 확률은 낮추고 전력은 키웠다.

영입을 담당한 권윤희 스카우트는 “어센시오는 예전부터 눈여겨 봤던 선수인데 보직 문제로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번에는 성격도 좋았고 마무리라는 조건이 맞으면서 가장 먼저 영입을 하게 됐다. 브렛 필은 트리플 A에서 성적도 뛰어났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다. 권백능력이 좋고 직구만 밀



리 치는 선수가 아니라 변화구도 잘 치는 만큼 기대가 된다”며 “홀튼은 일본 야구를 경험해서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초반에 겪는 번트 수비나 투구 습관 등 적응면에서 유리하다. 안정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새해 첫 승 도전!

이용대-유연성 조 7~12일 코리아오픈 출전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이용대(삼성전기·왼쪽)가 국가대표 남자복식 파트너 유연성(국군체육부대)과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서 새해 첫 ‘금빛 스매싱’에 도전한다.

대한 배드민턴협회는 7일부터 엿새간 서울 송파구 오륜동 SK핸드볼 경기장에서 2014 빅터 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를 주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세계 배드민턴연맹(BWF)이 승인하는 대회 가운데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대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2등급에 속하며, 상금은 총 60만 달러(약 6억3000만원)가 걸려 있다.

지난해 대회에서 고성현과 조를 이뤄 당시 세계 랭킹 1위인 마티아스 보에-카르센(덴마크)을 꺾고 남자복식 금메달을 목에 건 이용대는 파트너를 바꿔 2년 연속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10월부터 국가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이용대-유연성은 11월 중국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와 홍콩오픈 슈퍼시리즈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타 세계랭킹 17위에 올라 있다.

이들 외에도 한국에서는 남자복식 김사랑-김기정(삼성전기), 여자복식의 장예나(김천시청)-김소영(인천대), 혼합복식 유연성-장예나, 이용대-신승찬(삼성전기) 등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또 한국 단식을 대표하는 손완호(국군체육부대), 성지현(MG새마을금고), 배연주(KGC인삼공사) 등도 메달에 도전한다.

이밖에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 리쑹웨이(말레이시아)와 보에-모겐센 조 등 22개국에서 선수 233명이 서울에 모인다.

/연합뉴스

UFC 한국 오나

〈종합격투기〉

안방에서 세계 최고의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를 관전하려는 한국 격투기 팬들의 오랜 바람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 피셔 UFC 아시아지부 대표는 2일(현지시간) ‘UFC 인 싱가포르’ 대회를 이틀 앞두고 마리아 베이 샌즈 호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올해 말을 목표로 한국 대회 개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피셔 대표에 따르면 UFC 아시아지부는 UFC 독점 중계권을 가진 케이블 채널 슈퍼액션 등 업체들과 한국 대회 개최에 관한 협

의를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일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설사 논의가 지연되더라도 2015년 1분기에는 한국 대회가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UFC 대회가 열린 곳은 평균 가격이 약 15만원에 달하는 티켓을 살 여력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마카오 같은 관광지나 아시아 최대의 격투기 시장이 형성된 일본이었다.

피셔 대표는 “UFC에는 정찬성, 김동현,

아시아지부 대표, 올 연말 개최 추진

임현규처럼 이미 세계적인 스타가 된 선수들이 있기에 그 어떤 종목보다도 티켓 단가를 높일 수 있는 힘이 강하다”면서 “이제 훌륭한 선수들과 팬들의 관심, TV중계와 스폰서 확보 등 여러 조건들을 한데 묶는 작업만 남았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곧 한국 대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FC는 올해 아시아에서 이번 싱가포르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을 포함해 최대 7차례 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메이카 육상 최강 비결

완벽한 다리 대칭에 있다”

英 일간지 인디펜던트

자메이카 육상이 단거리에서 세계 최강으로 입지를 다진 원동력을 신체 구조에서 찾은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일 자메이카 육상의 성공 비결을 오랜 기간 추적한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심리학부 존 매닝 교수의 연구 결과를 비중있게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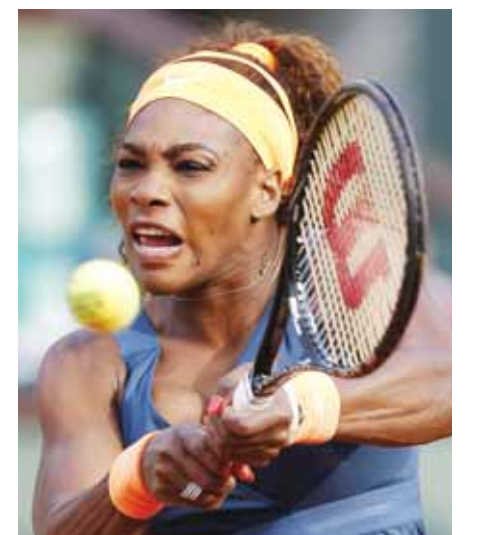
매닝 교수팀은 자메이카 어린이들이 유럽 아동보다 완벽하게 다리 대칭을 이루고 있다며 특히 좌우 무릎의 균형이 좋다고 밝혔다.

이런 신체 특징 덕분에 자메이카 어린이들이 육상 선수로 성장하면 단거리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매닝 교수팀은 1996년 평균 연령 8세인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신체 균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이 22살이 된 2010년, 다시 자메이카를 찾은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신체 성장과 다리와 무릎의 대칭, 조화를 비교 분석했다. 이어 이들 중 단거리 달리기에서 자원한 163명을 대상으로 기록을 켜다.

연구팀은 14년에 걸친 검사에서 다리와 무릎의 좌우 대칭을 이룬 사람들일수록 달리기에서 열의를 보였고 기록 또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빨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샤라포바-세리나 4강 격돌

호주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사진 오른쪽)와 마리아 샤라포바(4위·러시아)가 새해 첫 대회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윌리엄스는 2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여자 프로테니스(WTA)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 단식 3회전에서 도미니카 시볼코바(23위·슬로바키아)를 2-0(6-3, 6-3)으로 제압했다.

서브 에이스 12개를 퍼부은 윌리엄스는

상대에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단 한 차례 허용하는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1시간1분 만에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샤라포바가 카이아 카네피(30위·에스토니아)에게 2-1(4-6, 6-3, 6-2) 역전승, 준결승에 선착했다.

윌리엄스와 샤라포바의 상대 전적에서는 윌리엄스가 14승2패로 압도하고 있다. 2004년 투어 챔피언십에서 샤라포바가 이긴 이후 윌리엄스가 내리 13연승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맞춤 웨딩의 명소 신양파크호텔

2014년 신년 **감사 웨딩 할인 축제**
기간 | 2014년 2월~3월(2개월)

감사할인 특별메뉴 (200명 이상)

뷔페 ₩30,000원~
스테이크 ₩35,000원~ (세금별도)

기타혜택: 객실 2실 무료제공, 꽃길 무료제공, 폐백식 무료제공, 열음조각 무료제공, 음주류 50% 할인, 웨딩캐드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